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주님 성탄 대축일 (2023년 12월 25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루카 2,11)



‘아기예수 탄생’ | 그림: 이은숙 안칠라 수녀님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바오로딸 콘텐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성탄

어서 가 경배하세

102

Moderato *mp* John Francis Wade

1. 모든 형제들 아 즐겨 노래 하며 베들
2. 순직한 목동은 양의 무리 떠나 천
3. 성부의 외아들 만왕의 왕 인 주이

레 험성 밖 - 에 달 - 아 - 가 세
사 가 알 려 - 준 아 - 기 - 찾 네
밤 외 양 간 - 에 나 - 계 - 시 네

f

구 세 주 그리스도 강 생 하 셧 도 -- 다
우 리 도 가 세 평 화 임 했 도 -- 다 어
점 손 의 아 기 사 랑 의 구 세 -- 주

p *mf* *f*

서 가 경 배 하 세 어 서 가 경 배 하 세 어

서 가 경 배 하 세 - 경 배 하 세 세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사야서 9장

(이사 9,1-6)

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4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예수님의 탄생

(루카 2,1-14)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신부님 방문으로 가정미사를 드리고 함께 복음 말씀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L1, RC1)
- “나그네” 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부단히 이루고자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며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NV2)
-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노력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주님만은 다 알고 계시니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NV2)
-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NV2)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NV4)
- 문 프란치스코님의 어머니와 아델라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V4)
- 천주교 신자로서 기도와 나눔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며 내 삶의 중심을 하느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RC3)
- 반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RC3)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0.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1.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성가 102번 ‘어서 가 경배하세’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당 성서 공부 질문과 응답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주임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강의를 본당 홈페이지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강의 내용이나 성경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은 반장님이나 Google Form으로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QR Code를 스캔하셔서) 오승수 시몬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신약성경과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오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A 초대교회 때, 구두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목격자들의 연속된 죽음으로 희미해져 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을 집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복음서가 모였을 그 당시에, 교회의 사람들은 마태오 복음서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서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대기를 추정했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임에도 여전히 마태오 복음서를 복음서들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이유는 현대 교회가 교회의 그러한 오랜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이 됩니다. 성서와 성전이라는 부분이죠. 마태오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교회의 전통적 믿음은 성전, 거룩한 전통에 속하는 영역이죠. 그 부분을 존중해서 지금도 교회는 마태오 복음을 신약성경의 맨 앞자리에 둡니다.

Q 마태오복음 8,1-4 (나병환자를 고치시다)에서 4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A 일단 율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자신이 부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제 그는 진정으로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흔적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레위기 13,6 “다시 이레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수그러지고 살갓에 더 번지지 않았으면,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단순한 습진이므로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과 이 기적 이야기의 연결은 명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하지만 애매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함구에 대한 의미가 그 나병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나병환자가 이전에는 나병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그를 보호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기적 후에, 함구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함구 발언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복음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설서를 찾아보아도 무언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세주의 구원 사업이라는 보편적 가치 안에서 각자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한 분의 예언자이셨죠. 하지만 그 사람의 기적이 너무 부각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기적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란 현세에 대한 집착을 낳게 됩니다. 몸을 낫게 해주고 몸을 배부르게 해주고 등의 기적은 결국 현세에 그 의미를 맞추기 때문이죠. 누구를 죽여줘서 하늘나라에 빨리 가게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초반에 이 기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을 오로지 왕으로 만들고자만 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면 그들이 굶을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욕심이 솟구치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기적의 양면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충분히 신중하셨고 그 신중함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사건에 대한 함구명령이었다고 해도 자연스러운 풀이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도 그러한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탄 편지



이해인 수녀님 | 가톨릭 수도자 시인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제가 드릴 성탄 선물은
오래 전부터 가슴에 별이 되어 박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꽃피고 열매 맺은 우정의 기쁨과 평화인 것을.

슬픈 이를 위로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기도로 봉헌하며 하얀 성탄을 맞이해야겠지요?
자연의 파괴로 앓고 있는 지구와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히 받아 안기로 해요.
그 동안 못다 부른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해요.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아기예수의 탄생과 함께 갓 태어난 기쁨과 희망이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물인 것을...